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오리고기 소비 정체,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4월 1일, 전복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발생한 AI로 인해 오리업계는 끔찍한 악몽(惡夢)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그 이유는 바로 AI로 인해 급감한 소비세가 아직 까지도 정상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첫 발생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우리 오리업계를 괴롭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오리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03~2004년과 2006~2007년의 경우와 달리 올해는 한번 떨어진 소비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오리고기 소비량이 AI 발생 이전 대비 20~30% 감소한채 유지되고 있어 오리업계 관계자들의 시름만 점차 깊어져 가고 있다.





올해와 같이 특수한 현상이 발생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오리 관련 요식업소들의 연이은 폐업사태이다. 올해의 사례가 지난 2차례 AI 발생시와 다른 점은 그 당시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오리는 다른 축종과는 달리 요식업 판매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축종인데 이렇게 지리한 AI 발생에 고객이 찾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다보니 폐업, 또는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져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단위·단체 외식객 감소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높은 곡물가 및 유가,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여러 국가에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경제의 영향으로 한 때 9월 위

기설, 제2의 IMF 도래설 등이 난무하는 등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 시국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단위나 회식자리 등의 단체모임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대부분이 가족단위나 단체고객 위주의 형태를 띤 오리고기 외식업소가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셋째, 유가 상승으로 인해 시외 지역 운행을 꺼리는 분위기에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는 유가로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 운행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 오리 요리전문점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다양화되고 도심지 분포도도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고 가야 먹을 수 있는 오리고기 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 등을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중들이 오리고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소비욕구를 저하시킴으로써 전체 오리고기 소비율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추세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예상 소비율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아 이대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